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 FY2012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의 주요 원인은 보험료 인하,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시장 확대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현재의 보험료 감소요인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FY2013에는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논란이 하반기에 재연될 개연성이 큼. 그러므로 현재는 손해를 안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시장관계자들의 선제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FY2012 자동차보험산업의 전체규모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역성장(-1.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FY2012 원수보험료는 12조 8천억 원으로 FY2011 약 13조 원 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즉 전년대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FY2012 원수보험료 자동차보험 성장률

(단위 : 10억 원)

구분	FY2011	FY2012	성장률
원수보험료	13,035	12,82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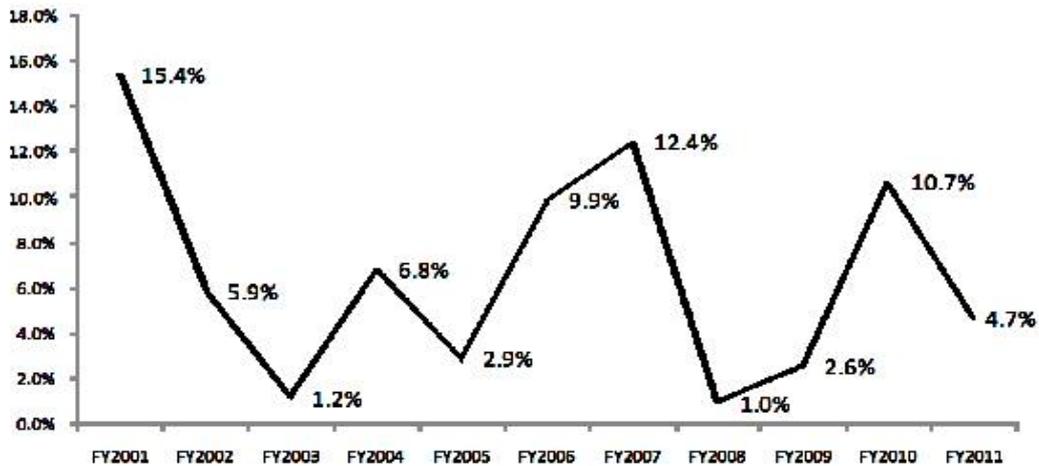
주: 동 자료는 2013. 3월 말 기준으로 마감된 업계자료이므로 최종 통계결과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저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실적자료.

- FY2001년 이후 성장률이 1% 수준에 불과했던 시기(FY2003, FY2008)는 있었지만, FY2012처럼 역성장한 것은 처음 있는 현상임.

- FY2001부터 FY2011까지 약 11년 간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보면, 매년 1%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역성장한 사례는 없었음.

〈그림 1〉 FY2001 이후 자동차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보험개발원.

■ FY2012 원수보험료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대당보험료 감소인 것으로 분석됨.

- 보험료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대당보험료와 자동차 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동차 대수는 전년대비 3.6%증가하였으나, 대당보험료가 5.0% 감소하여 전체 원수보험료가 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2〉 FY2012 원수보험료 감소요인

(단위 : 천 대)

구분	FY2011 (A)	FY2012 (B)	성장률 (C=B/A-1)
자동차 대수	17,590	18,236	3.6%
대당보험료(원)	742,810	705,620	-5.0%
합계			-1.6%

주: 자동차 대수 성장률은 평균유효 대수 기준이며, 기준날짜는 각 FY년도 1월 말임.
 자료: 업계 실적자료 및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 대당보험료가 감소한 이유는 직판시장 확대,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시장 확대, 기본보험료 인하(2012년 4월경으로 추정), 사고자 특별할증적용률 인하경쟁, 기타 경쟁요인 등이며 이중 기본보험료 인하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기본보험료 인하로 2.5%의 보험료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다음으로 사고자 특별할증률 인하경쟁으로 약 1%, 직판시장 확대 및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 판매증가로 각각 약 0.4%의 보험료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3〉 대당보험료 감소원인별 효과분석

(단위 : 십억 원)

구분	감소효과	구분
직판시장 확대	0,4%	FY2011: 25% → FY2012: 27.7%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 판매증가	0,4%	FY2012: 시장점유율 약 10%
기본보험료인하 (2012년 4월 경)	2,5%	자동차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효과
사고자 특별할증률 인하경쟁	1,0%	자동차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효과
기타 요인	0,7%	-
합계	5,0%	-

- 주: 1) 직판시장 시장점유율은 전체자동차보험 기준의 근사치임.
 2)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은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 포함) 기준의 근사치임.
 3) 기본보험료 인하 효과는 전체자동차보험료 기준의 근사치임.
 4) 사고자 특별할증률 인하 효과는 전체자동차보험료 기준의 근사치임.
 5) 효과 추정 시 이용된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 포함)의 시장점유율은 FY2011년 수입보험료 실적을 사용하였음.
 6) 본 추정값은 대당보험료 감소 원인들의 효과를 구체화하여 파악하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효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기본보험료 인하로 인한 효과, 사고자 특별할증률 인하경쟁 등의 효과는 보험산업 요율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추정한 개괄적인 값임.
 8) 본 효과는 원수보험료(또는 수입보험료)기준 효과이므로, 경과보험료 기준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향후에도 이상과 같은 보험료 감소요인 및 손해액 증가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FY2013 대당보험료도 FY2012와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할 개연성이 크며, 이러한 보험료 감소 및 손해액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율도 FY2012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의 영향과 손해율 악화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당보험료 감소원인들의 영향은 향후(FY2013)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사고발생률의 경우, FY2012(2012. 4~2013. 1)의 사고발생률은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발생률은 외생변수(경기, 유가, 이상기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FY2013의 사고발생률은 FY201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건당손해액의 경우, FY2012(2012. 4~2013. 1)의 건당손해액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당손해액은 인건비증가, 의료비 인상, 차량부품비 인상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FY2013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표 4〉 FY2012 손해액 증가요인

구분	2011. 4월~2012. 1 (A)	2012. 4월~2013. 1월 (B)	증감률 (%, C=B-A-1)
건당손해액(천 원)	1,966	2,065	5.0
사고발생률(%)	24.9	23.2	-2.9
합계			2.0

주: 2013년 3월 말 기준 누적 사고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각 회계연도 11월 말 기준통계로 전체적 흐름을 추정하였음.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 건당보험료 감소와 손해액요인(사고심도 및 사고빈도)의 악화로 손해율이 악화되면,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2010년의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현재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이해당사자들(소비자, 손해보험회사,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험료인하 경쟁을 자제하고,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에 부합한 요율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고(사고발생률 및 보험원가)와 관련된 정책당국은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한 정책과 보험금원가에 영향을 주는 의료비, 공임 및 수리비 등에 보험원가 절감 요인을 파악하여 해소하는 정책을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kiri](#)